

리서치팀

☎ 82-2-3774-0451

## 1. 통화전망

###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110원~1,127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달러/원은 연휴 앞두고 수출업체 네고 물량을 소화하고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 급등세 진정되며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다만 하단에서의 꾸준한 결제수요와 연휴를 앞두고 아시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우리 증시 상단 확인 후 차익실현 매물 지속으로 환율 하단 지지될 것으로 보임. 또한 게임스탑과 관련한 이슈는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며 인민은행 유동성 축소 우려로 인한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는 약화. 금주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으며, 설 연휴 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환율은 급등세 진정된 달러화 연동해 약보합 예상.

###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1900~1.24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최근 미국 고용지표 실망감으로 되돌려진 글로벌 달러 급등세와 미국 부양책 기대감을 소화하며 상승 우위를 전망. 미국의 백신 접종이 유럽보다 훨씬 빠른 것은 확실하지만 또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위험회피심리 완화되고 있는 배경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화 약세 요인. 또한 이탈리아 차기 총재에 드라기 전 ECB총재가 지명됐는데 금주 연정 구성이 성사될 지 관심이 집중. 또한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공동 개발 백신이 변종바이러스에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주요 유럽국에서 백신 접종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유로화를 지지할 것으로 보임.

###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5300~0.985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엔/달러는 미국 의회의 경기부양법안 관련 예산 조정 절차 본격화를 앞두고 부양책 시행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에 연동해 강보합 전망. 또한 파월 의장은 오는 10일 뉴욕 이코노믹클럽이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 파월 의장의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비둘기파 입장을 이어갈 공산이 큼. 다만 파월 의장이 추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미 국채 장기 금리 급등세 진정되며 엔/달러 상승세 키울 수 있음.

## 2. 지수전망

###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500~3,85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도입 진척 상황을 주시하며 등락할 것으로 전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음.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현금 지급 대상의 규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도입할 예정. 법안의 진전이나 공화당과의 협상 관련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규모나 내용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대규모 부양책이 결국 나올 수 있기에 위험투자 심리가 지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오는 9일부터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 탄핵 논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의회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점을 부담이 될 수 있음. 다만 최근 진정되는 추세인 미국내 코로나 19 상황과 백신 보급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

## 3. 상품전망

###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50~59.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국제유가)는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제 강화 예상으로 인한 원유 수요 회복 둔화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을 포함한 NOPEC의 원유 생산량 확대 가능성에 약보합 전망. 다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원유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OPEC+의 감산으로 유가 하반 지지선이 단단해진 점, 백신 보급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의 좌석 점유율이 지난 9월 말에 비해 20% 감소. 중국 교통부는 다가오는 중국 춘절에 이동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춘절 기간의 이동은 2019년에 비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3월 개최되는 OPEC+장관회의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간의 입장차이를 고려했을 때 산유국 불확실성 여전할 것으로 보임.

###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30~2,000USD

예상 레인지: 24.00~27.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미국 부양책 시행을 주시하며 글로벌 달러 약세 우위 속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 주 금 가격은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2의 게임스탑으로 은을 지목하며 은 값이 2013년 이래 최고치까지 급등한 바 있음. 금 가격은 은과 연동해 급등했고 게임스탑 이슈가 해소되며 은 가격이 하락하며 이와 동조해 금값도 상승세를 되돌렸음. 게임스탑 이슈가 사라지며 글로벌 달러와 연동될 공산이 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안을 마련. 바이든 정부는 3월 중순 전까지 통과를 목표하고 있으며 부양책 기대감이 약달러 유도하며 금 가격 지지할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http://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